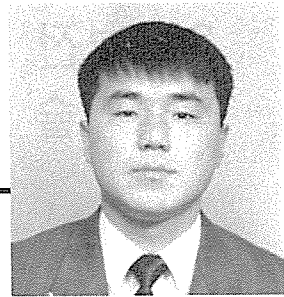


## 철학있는 연구자세로 완숙한 과학도가 돼야

강수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농업개발연구소)



농화학과 생화학실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났다. 4년 동안 돼지감자, 치커리 등의 식물체에 주저장탄수화물로 존재하고 있는 이눌린(inulin)의 분해에 관련된 미생물 효소를 생산, 분리, 정제하여 특성을 밝히고 돼지감자의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사실 농업이나 생명과학분야의 대학교 연구 환경은 기자재, 재원에 있어서 열악하며, 산·학·연·관의 공동연구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한다. 학과공부, 연구수행, 부업, 잡무 등으로 꼭 차있어서 24시간도 부족한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대학원을 마친 후 자신이 테크니션은 되었지만 깊이가 없다는 아픔을 느꼈던 것을 상기하며 그동안 교수님께 많이 혼나면서 가지고 있던 대학원생의 연구자세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부족하나마 지면에 옮기고자 한다.

첫째, 자기 자신의 연구 목표, 연구의 타당성, 연구의 방향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연구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연구실의 기존 연구과제를 이어받거나 외부 수탁과제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자기가 맡은 일의 정당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의 연구에 집중하여야 한다.

속된 말로 자기의 일에 미쳐야지 연구가 올바르게 진척된다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부분만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얻어진 결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연구중 발견된 사실들을 무시하지 말고 논리의 사슬을 꿰어 나가야 한다.

셋째, 학문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연구에는 학문과 적용이라는 두 큰 바퀴가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농촌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계획하려고 했을 때 난감함을 느꼈다. 또한 기업연구소에 있는 선배로부터 산업적 연구 규모에 대해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 좁게 연구하고 있음을 느꼈다. 주위의 농업 및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들을 자주 방문하여 시야를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연구와 공부를 동시에 깊이 있게 수행했으면 좋겠다. 또한 기자재가 없다고 해서 좌절치 말고 여러 방향으로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원 생활은 졸업 후 연구소에 취직을 하든 지속적으로 박사 과정을 밟든 잠시 거쳐가는 한 과정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많이 부딪치는 일들을 통해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연단되는 이는 완숙한 과학도가 될 것이다. **ST**